

김제시 '민간육종연구단지' 준공

종자수출 메카로 육성 계획... 20개 종자기업 입주 예정... 현재 아시아종묘 등 7개사 입주

김제 백산면 상정리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부지에서 종자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민간육종연구단지 준공식이 23일 개최되었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재수 농식품부장관, 류갑희 실용화재단 이사장, 이건설 김제시장, 김종회 국회의원, 정황근 농촌진흥청장, 송하진 도지사, 나병문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정·관계 주요인사 및 종자산업 관계자, 지역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건설 김제시장은 기념사에서 "민간육종연구단지는 대한민국 종자산업의 희망이자 김제 백산대계를 이끌어 갈 핵심사업이며, 대한민국이 꿈꾸던 종자강국이 김제에서 실현될 것이다" 라고 전했다.

민간육종연구단지는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일원 54.2ha에 총사업규모 681억원을 투입하여 종자산업 R&D 인프라 조성 및 첨단육종연구서비스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 종자수출 메카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 10월 31일 준공했다.

민간육종연구단지에 20개 종자기업이 입주하여 종자산업진흥센터의 최첨단육종기술 서비스, 수출 마케팅 등 종자사업 관련 종합서비스를 지원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 준공식 퍼포먼스

받게 된다. 현재까지, 아시아종묘, 코레온 등 7개사가 입주하였으며, 내년 초까지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다.

서상철 기술보급과장은 2016년 4월 김제종자생명산업특구를 지정받았으

며, 특구의 핵심사업인 민간육종연구단지 준공으로 체제된 우리나라 종자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종자강국으로 도약하는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며, 또한 김제시가 대한민국을 대

표하는 농생명산업도시로 급부상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농업 활성화 등 지역사회에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동학혁명 회고담 '석남역사' 기증

저자 박문규의 손자 박남순 씨, 기념재단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이승우)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발발 당시의 기록이 담겨 있는 '석남역사'를 소장자 박남순씨(저자 박문규의 손자)로부터 기탁 받았다.

'석남역사'는 동학농민혁명 최고지도자 전봉준의 서당에서 8세 때부터 학습하며 유학적 지식을 쌓았던 박문규(1879~1954)가 73세가 되던 1951년에 직접 기록한 회고담으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던 당시에 고부 지방에서 체험한 경험을 토대로 작성됐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이 16세 때 목도한 고부봉기 내용 일부를 기술했으며, 황토현 전투에 대해서는 직접 보고 체험한 것을 토대로 더욱 상세히 기록했다.

전봉준이 1886년 이전부터 조소리에서 서당을 열었다는 것과 고부봉기가 말목장날에 일어났으며 통문이 풀었다는 것, 고부민들은 전봉준 등 상두에 대해 상당한 신뢰를 갖고 단합된 행동을 했다는 것, 농민군이 일정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둔취하였다는 내용 등이 실려 있다.



'석남역사'는 관군이나 유림층이 아닌 농촌지식인이 직접 경험한 것을 기록해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이 전개되는 상황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으며 당시 고부민의 동향까지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목격 또는 전문 자료라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깊다.

기념재단 관계자는 "유물을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학술조사 및 연구·전시·교육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김필기 한우협회 임실지부장 '대통령 표창'

농진청 '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회 유공자 시상식'에서

농촌진흥청 주최 '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회 유공자 시상식'에서 김필기 전국한우협회 임실군지부장(사진)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23일 장수군 소재 한국농업연구소에서 열린 이날 시상식에서 김필기 지부장은 국정과제인 '농림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하고 스마트팜 확산, 농산물 수급안정 등 신기술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다.

김필기 지부장은 "어려운 농촌현실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농업발전에 더욱 매진하라는 특별한 의미에서 주어진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필기 지부장은 그동안 농촌지도자회 임실군연합회, 농

업경영인, 전국한우협회 등 다양한 학습단체 활동을 하며 능력을 인정받아 군 농업경영인 회장, 전국한우협회 군지부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또한 HACCP, 친환경농업 활력화, 가축방역, 지역농업혁신리더, 농업인대학(한우반) 등의 교육으로 신기술 수용에 적극 참여한 결과 선진농장 스마트팜 신기술인 한우 250두 일괄사육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연간 5천만원의 경영비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ICT(정보통신기술)를 축사에 접목해 스마트팜 신기술보급과 경영합



리화에 앞장서고 있다.

수입축산물과 차별화 및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을 획득하고 친환경 병진도 활용을 위한 생산, 고품질 조사료 안전생산 기반구축, 암소개량사업 등의 한우 고급육 생산에 기여했다.

이 결과 농장 내 육질등급 1++(최고등급)을 80%까지 달성, 선도농가의 모범을 보이고 자가인 공수정 기술 등을 전파하는 등 한우산업 발전에 이바지했다.

이외에도 농외소득이 없는 농촌현실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지난 2007년 500KW 규모의 축사태양광 발전을 시범운영하고 확대 운영을 통해 연간 7억5천만원의 농외소득을 창출하는 등 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임실=진흥영 기자

송하진 지사 "새만금개발청장 진로 문제까지 고민해 봐야"

송하진 전북지사가 '경계'까지 언급하며 새만금개발청장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송 지사는 지부부진한 새만금 사업과 최근 삼성의 새만금 투자 무산 등에 대한 새만금개발청장의 역할이 미진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23일 송하진 전북지사는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을 겨냥한 발언을 잇따라 쏟아냈다.

송 지사는 이날 "새만금개발청장이 약 7년간 새만금 관련 업무를 보면서 과연 전북의 이익을 대변해 적극적인 역할을 했는지 묻고 있다"며 "이대로 가는 건 문제가 있고, 청장의 진로 문제까지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송 지사가 새만금개발청장을 겨냥, 언급한 것은 새만금 개발에 앞장서야 할 새만금개발청의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삼성의 새만금 투자 협약이 무산된 것에 대한 청장의 대응이 못마땅한 것도 한몫했다.

/뉴스

AI 위기경보 '경계'로 격상

축산 농가 모임자체 명령, 대책본부·상황실 운영 등 실시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됐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초 의심축 신고일인 지난 16일 이후 1주일 만에 2개 도 4개 시·군(전남 해남, 무안, 충남 음성, 청주)에서 고병원성 AI(H5N6형)가 발생한다 이어, 경기도 양주와 전북도 김제, 경기도 포천에서 의심축이 계속 신고되는 등 서해안 지역의 확산 조짐과 전국적인 추가 발생이 우려돼 이 같이 결정했다.

'경계' 단계가 발령되면 전국 축산 농가에 대한 모임자체 명령과 전국의 모든 도와 시, 군에 AI 대책본부와 상황실이 운영되고 농장 출입통제와 소독 예찰 활동이 강화된다.

현재까지 AI가 확진된 지역은 전남 해남(산란계), 충북 음성(오리), 전남 무안(오리), 충북 청주(오리) 지역 4개 농장이다.

또한 경기 양주(11월20일), 포천(11

월22일) 의심축 신고 건에 대해 정밀 검사 중이다.

이미 이반 AI로 지금까지 확진 농장과 인근 농장 31곳에서 닭과 오리 51만8,000마리가 매몰 처리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위생법집행지침정보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발생 경로를 추적하고, 국가동물방역통합 시스템을 KT의 빅데이터 분석과 연계해 예측된 위험지역에 홍보해 방역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매월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도축장 등에 대한 방역 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가축방역 심의회를 24일 개최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일시 이동중지 추가 발령, 계열업체 방역관리 및 철새관련 추가 방역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